

# 신행수기 시간속으로 달리는 시한폭탄 <중>

신선희 (43·경남 창원군)

또한 에스트로젠(호르몬) 주사로 현재의 종양을 사해서 2cm정도로 줄여 수술을 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3cm이며 출혈과도 수술도 위험하다고 했다. 일반적인 자궁내 폴립은 6cm정도 되면 수술을 하지만 내막 근육층은 위험한(출혈과) 부위라고 해서 의료보험 혜택도 되지 않았다.

손가락 한마디보다 작은 열을 하나에 이 십팔만원, 적어도 석달동안 주사를 각각 한 차례씩 맞아야 하고, 한 달에 한 번 주사를 맞고 난 후 수술이 결정되는 것이다.

삶의 허탈함, 움직이지 않는 육체는 시체처럼 누워있고, 검사결과와 치료방법까지 나왔다. 자궁축출은 하지 않는다. 인연가는 결혼을 할 것이냐? 그러면 후자를 선택해야만 한다. 병실에 누워 머리는 무겁고, 아프고, 이쪽 저쪽을 돌리지 못한 채 엄청난 고통이 의식 자체를 점령했다. 어지럽다. 눈동자의 초점을 맞출 수가 없었다. 자신도 돌고 물체도 돌고 계속 중심이 흔들리는 채로 사물이 돌고 있다. 고통으로 3일 낮밤을 보내고 나니 두통도 덜하고 항생제 주사와 치료 때문에 하혈도 거의 멈춘 것 같았다. 청정한 의식만 살아 움직인다.

움직일 수 없는 육체는 눈만 천정을 향하고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달리기 한다. 학교출강이 걱정이 되고, 한달 결계가 가슴을 짓누르고, 학원정리는 생각처럼 쉬이 되지 않고 쌓이는 부채는 머리위까지 올라오는지라, 아 어찌하면 좋을까, 어느새 얽히고 있는 모습에 눈물 땀과 '시현 원력흥심 대자대비 구구구 관세음보살...' 달리 어떤 방법이 없었다. 안으로 안으로 오로지 한 마음, 님이여, 고통으로부터 살려주소서,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 오로지 홀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면 집안의 안락함과 몰락의 선상 위에 있었다. 주치의는 회신 때마다 조연을 했다.

"자궁내막의 근육층안은 사라지지 않으니 작게 하여 질 내경으로 수술합니다." 치료만하면 인연가 반복된 하혈은 출혈과도 생명에 위험하므로 꼭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도 저것도 사람살이가 싫었다. 가능하더라면 나의 열에 팔자국을 남기고 싶지 않았

다. 이미 종양 사하는 주사는 맞았다. 3주 뒤에 다시 입원해 검사 후 수술을 해야만 했다. 슬한 고민과 번뇌 속에도 검사 후 수술을 해야만 했다. 슬한 고민과 번뇌 속에도 불기운은 온 우주에 생명력으로 가득 찼다. 의식도 어지러움도 조금씩 땅에서 오르는 순수에너지처럼 명쾌해져 갔다. 삶은 인간업인의 연결과 습관의 연속적인 골짜기에 묶여있을 선연하게 보였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나의 직관력은 삶의 모퉁이에서 어지러운 그 네마냥 흔들리고 있었다. 병실 베란다에는 붉은 연산홍, 화사한 어린처럼 화려하게 화장을 했다. 빗물에 축축이 젖어 끊임없는 생명력을 전해왔다.

4월 14일 나의 어학원 원룸으로 돌아왔다. 쉬 수 없었던 나의 일, 고통과 고민 속의 업무시간에서도 <금강경> 독송은 나의 휴식처이고 안식처였다. 3주후 병원일 갔다. 수술은 하지 않은 채 되돌아 왔다. 오월 푸른 잎의 풍성함이 기운차려라 한다. 어학원은 그렇게 기다려도 받아줄 인연



그림 · 김홍인

이 더 중요했다. 그 행복감의 실체는 형태도 없이 부질없는 망상이고 한 생각이었음을 알았다. 그래서 부처님은 제법무야라고 하셨나보다.

구구절절이 가슴에 와 닿는 경전과 <금강경> 말씀에 통곡을 했다. 너무나 애통하여 자살이라는 것을 생각했다. 슬한 날을 홀로 방에서 기도하고 경전을 읽고 침묵의 언어가 내 마음과 상응할 때 고통한 생명력만 이어가고 있었다.

육체는 자신을 방해했고 자신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감각과 감정은 의지와 판단을 두렵게 만들고 불안정하게 했다. 때때로 아랫배가 아팠다. 두번 다시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난 후 병원은 가지 않았다. 그 이후 출혈은 없었다.

어학원을 정리한 후 학교 출강만 시간강사로 움직이고 있을쯤 초가를 어느 날 부산에 살고 있는 범우 한 분이 찾아왔다. 팔공산 갖바위 1박 2일간 기도를 하자고 그랬다. 몸과 마음을 씻고 범우와 함께 늦은 오후로 1박 2일간 정진하자고 했다. 몸과 마음을 씻고 범우와 함

## “병원 안간다” 결심...금강경 독송 몰두

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빠의 사업부도와 그로 인하여 집안은 무상과 허무와 절망의 분위기가 되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행무상이라고 그랬나보다. 가슴 속 뭉속까지 무상함이 어려웠다. 무엇이든지 영원하지 않았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것이 절절이 와 닿았다. 그것이 집착하는 나의 마음 때문이라는 것도 알았다. 내 것, 나의 것이라는 강한 집착이 나를 아프게 했다. 진정한 나는 무엇이든 진정한 너는 무엇인가. 끝없는 질문을 던졌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도 희미한 착각이자 허구이며 아름다운 환상으로 보였다. 우리나라가 부도난 것처럼, IMF란 단어가 한 순간 삶을 허망하게, 모든 것을 어떤 형상도 없이 순식간에 사멸하게 만들었다.

어떻게 하면 난 행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더 중요했다. 그 행복감의 실체는 형태도 없이 부질없는 망상이고 한 생각이었음을 알았다. 그래서 부처님은 제법무야라고 하셨나보다.

구구절절이 가슴에 와 닿는 경전과 <금강경> 말씀에 통곡을 했다. 너무나 애통하여 자살이라는 것을 생각했다. 슬한 날을 홀로 방에서 기도하고 경전을 읽고 침묵의 언어가 내 마음과 상응할 때 고통한 생명력만 이어가고 있었다.

육체는 자신을 방해했고 자신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감각과 감정은 의지와 판단을 두렵게 만들고 불안정하게 했다. 때때로 아랫배가 아팠다. 두번 다시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난 후 병원은 가지 않았다. 그 이후 출혈은 없었다.

어학원을 정리한 후 학교 출강만 시간강사로 움직이고 있을쯤 초가를 어느 날 부산에 살고 있는 범우 한 분이 찾아왔다. 팔공산 갖바위 1박 2일간 기도를 하자고 그랬다. 몸과 마음을 씻고 범우와 함께 늦은 오후로 1박 2일간 정진하자고 했다. 몸과 마음을 씻고 범우와 함

## 킬레이 수행일기 <상>



신택환 소설가, 한국문학 이사

초등학교 때 여자에게 이끌려 뻔 질나게 질 법당에 드나들었다. 그에게 하는 대로 부처님께 수없이 절을 하면 서도 그에 눈치 보기에 버렸다. 그때부터 나의 불심은 부처님 안에 있지 않고 부처님 밖으로 나돌아 다녔다.

중 3 때 썸자루를 짊어지고 외조모님을 따라서 망운사에 갔다. '맹탕' 보살들뿐이고 나를 보고 '거사님, 거사님!' 하고 불러주는 것이 싫지 않았다. 그해 겨울, 입시공부는 뒷전에 두고 외조모님께 <천수경>을 읽어드리라고 밤이 깊은 줄 몰랐다. <천수경>을 거지반 외었는데 다 까먹고 요즘 다시 외우고 있다.

하루는 망운사에서 통학하던 여자친구가 지각했다. 2교시가 지났는데 교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서성거렸다. 망운사에 가면 개를 만날 줄 알았는데 어디 숨었는지 못 만났다. 지금 그는 시인이요, 대덕고승인 것 같은데 속연을 확인할 길이 없다. 초등학교 교사 시절 초임지가 해인

하던 생각도 난다. 김 처사의 결혼식장에서 축시를 읽어주었는데 그는 스님으로 있다가 환속한 사람이었다. 절에 남아있는 형 얘기를 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한번 부처님께 존 마음을 버리고 환속해도 행복을 얻지 못한 듯 겨울 산의 붉은 잡목까지 끝을 보며 한탄하였다. 그의 부인이 김 처사의 마음을 알면 어떻게?

## 어릴때부터 불교와 남다른 인연 해인사 아래 작은 학교서 첫 교사생활

사 인근의 미니학교. 지금은 없어졌지만 자고 나면 절과 산만 보이고 만나는 이들은 절에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주고받는 얘기가 절 얘기를 빼고 나면 없었다. 머무를 곳이 없어서 암자에서 하숙을 하였는데도 향이와 명이가 내 손을 잡고 학교에 다니었다. 명이는 그런대로 절이 들어서 사미니 생활에 적응했으나 철없는 향이는 늘 말쑥이었다. 학교에서도 그랬지만 절에서 엉뚱한 짓을 해서 별좌 스님의 속을 썩였다. 말을 데리고 절에 와서 공양주를 하다가 사발을 한 그릇의 마음이 오죽 아팠으랴.

인간사 고해야한 것이 없다. 그때의 생각을 적은 것이 <단애>란 단편이다. 사미니의 번뇌와 사랑이 주제였다. 연상의 보살과 해작질을 하다가 말쑥이 나서 삼산으로 좌천되었다. 먹고 잘 곳이 마땅치 않아 청량사에 거처를 정했다. 학교에서 절까지 한 시간 거리. 밤늦게 산속을 헤매었다. 호랑이가 출몰한다는 말을 귀담아듣지 않고 십리 길을 오갔다. 단청을 입히지 않은 텅 빈 절에 스님 한 분과 수화 한 사람 그리고 나, 작막강산이었다. 호랑이보다 험상궂은 도둑이나 범목자가 산사에 스며들지 않을까 가슴 졸였으나 부처님의 덕인지 무사했다.

삼짇날 대장경을 이고 해인도를 도는 것이 즐거웠다. 일생에 세 번은 이고 돌아야 극락을 간다는데 나는 아직 한번은 못 채웠다. 마저 채운다면 나의 일그러진 마음의 탐욕이 가실까. 첫 새벽에 옥수로 얼굴을 닦고 부처님 앞에 엎드렸다. 반야심경을 곧잘 외었다. 점점 설산을 오르내리며 눈발이 마구 뿜굴었다. 감기에 걸려 기관지를 상하고 한동안 앓을 먹었다. 퇴근길에 산간들과 어울리곤 했다. 고깃집 뒷방에 숨어서 곡자를 마시며 소름돋음을 세우며 사라져갔다.(계속)

절 공부는 아직 멀었는데 무슨 마음인지 새 동지를 다른 곳에서 틀었다. 열마를 허송하고 다시 팔공산 자락을 오르내리며 갖바위 약사불앞에 무릎 꿇었다. 이 하잘것없는 인간에게 길을 인도해 달라고 매달려보았지만 전심으로 자기가 자기를 찾지 않는 데, 절을 자주 찾고 불경을 읽어도 이 기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자기를 버리는데서 불심이 썩 뜬다는데 어찌 이렇게 속연은 질기기만 한가? (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폭풍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교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인력(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isyhy@buddhapia.com

**영험량**

픽마승

**불보살님 가피력 받는사람**

참회하는 마음 > 갖는사람  
용서하는 마음 > 갖는사람

누구나 4차원 파장을 받을 수 있으며 음(陰)을 양(陽)의 기운으로 바꾸어 주면 육체, 마음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 중병은 70~80% 4차원 장애
- 육체, 마음 고통은 4차원 장애
- 기타, 인생사 4차원 장애

**▶ 인연기도로 기쁨을 받은 사례 ▶**

낙태 경험이 있는 사람 둘 중에 한사람이 고통을 받고 가족에게 영향을 주며 기도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물질, 금전욕, 애착, 그림움, 미움을 갖고 살아가던 사후에 구원을 떠도는 파장이 되어 직계 가족에게 영향을 준다

**해원사** 조 하루 18일 법회 신중참회기도  
031-736-3734 · 732-3790

**당 하 당 뇨**

국내최초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한방

**"당뇨와 미네랄이 만났을때"**

- ▶ 당뇨,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 ▶ 원재료 : 갈근, 치자, 대개, 계피, 감초, 칼슘, 칼륨
- ▶ 혈행이 개선되며 신체의 이상이 정상이 되며 비만도 해소됩니다.
- ▶ 하당은 식후로 먹는 약재만을 사용함으로써 부작용이 없습니다.

**참고**

하당을 15-20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되고 하당도 3개월부터는 1일 3회에서 1일 2회로 줄어 드시며 6개월 안에는 정상으로 됩니다. 단, 이때부터는 가벼운 운동과 식이요법을 더욱 신경써야 합니다.

- 이온성 알카리 미네랄 복합체의 기타 질환에 대한 효과 - 대사성질환(암, 고혈압, 경년기종합증세, 류마티스, 신장병, 간염, 간경화, 기관지염, 신경쇠약, 폐배장, 관상동맥경화증,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쇠약, 동맥경화, 뇌혈관질환, 어드름, 건선, 백반증, 백혈병, 비염, 구강염, 치료 불능, 심근경 변비 등) 한방의 처방전과 같이 복용하면 효과가 극대화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한방 **생인당** 특판부  
주문 및 상담전화 : 080-521-6666

**이젠 1시간 만두자하면 완벽한 절이 됩니다!!!**

**절을氣차게 잘하는법**

(휴초초 휴초법의 최첨단 건강 비법 공개 수련회)

- 임은 숨을 쉬는 곳이 아니고 코입니다.
- 세치의 혀를 잘못 눌러 망신 당하는 것 보다 입 벌리고 숨을 쉬어 병나고 망하는게 더 무섭다.
- 절, 영불, 독경, 주력 수행하고, 노래 할때 어깨, 가슴을 들먹거리며 임으로 숨을 들이 쉬는 수행이 아니라 병고액년의 어리석은 짓이다.

○합정하고 일어설 때 저절로 천연 호흡이 되어져 주위의 맑은 에너지가 복 차는 경지!!!

- 절할 때 침이 빠지고 몸살나고, 피곤하고, 지치고, 정신 사납고, 발, 무릎, 허리 아픈게 호흡을 잘못한 것
- 점적에서 숨을 내쉴때 날숨이 길어져 나쁜 기운은 순간 빠져 나가고 앤들린,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은 끊임 없이 나와서 평화롭고 행복하고 환희로우며 언제나 생생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체험하는 경지!!!
- 혈액기러임으로 숨을 쉬는 역호흡은 불행과 병고액년의 직접 원인!!!
- 상기병, 냉병, 소화불량, 당뇨병, 고혈압, 비만, 디스크, 관절염, 신경통, 아토피, 비염, 축농증, 우울증, 불면증, 감기몸살, 만성피로, 자궁근종, 변비, 자폐증, 치매 환자는 100% 입으로 숨을 쉬는 역호흡으로 잔비염, 먼지, 세균, 병균이 직접 입으로 들어와 몸이 차가워지며 성인병의 원인! 공부, TV 시청, 컴퓨터, 잠잘 때 입벌리고 있으면 바로나 병자, 불행한 사람이 되가는 과정이니 빠른시일내에 수련에 동참하여 치유 하십시오
- ★ 호흡이 맞먹 절하는 수행으로 단시일에 극복된 사례가 대다수입니다 ★

▶ 수련일시: 매주 화요일 밤 2시, 저녁 7시  
▶ 수련비: 입회비(만원), 수련비(2만원 : 3회 교육 가능)  
▶ 오시는 길: 지하철 5, 7호선 군자전철역 4번 출구에서 전호방으로 100M 이강스 가두 4동

**법왕정사 서울 군자법당**  
☎ 전화: 02)456-4994, 0035 http://cafe.daum.net/sorisan  
"숨을氣차게 잘 쉬는법" 책 9월 출간 예정

KBS, MBC, SBS, EBS 각종 언론에 방영된

**인생역전 김재덕**

**역학교육원**

실력있는 역학인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모집과정 : 수시모집

강 의 : 주 2회(화, 수요일)

- 사주통변이 부족하신 분,
- 책을 보고 독학하신 분
- 사주통변이 자신 없는 분

사주통변 및 작명법, 인연법 : 김재덕선생

관상학(특강 월 2회 화요일) : 신기원선생

신청문의

**02)567-4833**  
**011-9702-2237**